해남 군곡리 "단순 패총 아니다"… 고대국제무역항 위용 드러내

현장공개설명회…중국 신나라 동전(貨泉) 출토
"백포항 일대 국제무역항임을 알려주는 지표"
군곡리 명량해협 통과 길목, 무역선 머물던 최적 장소

해남군 군곡리 일원이 고대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발굴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남군은 22일 송지면 군곡리 일원 발굴 현장에서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 발굴 현장공개설명회를 가졌다.

목포대학교박물관이 2021년부터 7·8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발굴을 통해 제의와 관련된 대형 수혈(竪穴)주거지와 거석기념물, 생활유구인 청동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지군을 비롯해 삼국시대 무덤도 처음 확인됐다.

해남 군곡리 패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철기시대(마한시기)를 대표하는 마을 유적지로 손꼽힌다.

1986년부터 실시한 발굴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마한·백제시대에 걸쳐 형성된 유적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2003년 7월 2일)로 지정됐다.

특히 구릉 정상부를 에워싸는 패각층의 규모는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다른 패총 유적들과 비교할 때 최대급에 속한다.

중국 신나라(8~23년) 동전(貨泉)뿐만 아니라 중국·한반도·일본열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외래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해남 백포만 일대가 고대 국제무역항이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2020년 7차 발굴구역인 패총 중앙 정상부에는 제의시설인 거석기념물과 대형 수혈건물지가 소재하고 있다.

반경 10m 이내에는 다른 생활유구가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을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유지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거석기념물인 바위 표면에는 '성혈'이 적게는 5개, 많게는 30여 개 이상 확인된다. 성혈 크기는 3~5㎝ 정도이며, 깊이는 2~3㎝이다.

거석기념물 남쪽으로는 한변이 8.5m에 달하는 대형의 수혈건물지와 그 내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됐다. 말머리뼈(치아)와 함께 개배와 같은 제사용 그릇이 있어 일반 거주 건물이 아닌, 제사 의례와 관련된 중요 건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8차 발굴은 마을의 중앙부 및 남쪽 사면의 유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5세기 대 대형 수혈주거지를 비롯해 3~4세기대(마한시기) 주거지군, 삼국시대 석곽묘, 철기시대(마한시기) 환호,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 등 총 82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주거지 한 변의 길이가 8m에 달할 정도로 대형급이 7차에 이어 새롭게 노출됐으며, 역시 제의 유구들과 관련성이 높다.

남쪽 사면 끝자락에서 확인된 석곽묘는 대형 판석으로 네벽을 맞춘 구조로, 바닥 면 중앙에서는 인골이 항아리에 담긴 채 확인되었다.

항아리 주변에서는 공헌물로 추정되는 돼지 뼈가 있다. 이러한 매장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신나라 동전인 화천 1점과 청동거울 파편도 이번에 출토됐다.

이 밖에도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환호', 다양한 '주거지와 폐기 구덩이', 생활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기둥 시설'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도 확인됐다.

특히 8차 조사구역은 장소가 협소함에도 30~40여 채의 주거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룬 채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기간 새로운 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대형의 제의시설, 거석기념물 등은 바다 항해와의 관련성을 연결한다면, 국제적인 교역이 이뤄지는 대규모 마을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군곡리는 국내 4대 험조처(險阻處) 중 하나인 명량해협을 통과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무역선들이 머무르던 최적의 장소였음을 보여 주는 곳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곡리 패총 발굴 결과, 단순히 조개무덤의 의미를 넘어서 광의적 개념의 마한취락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확보됐으며, 중국-한반도-왜와의 동북아 국제해양교류의 중요 요충지였음을 고고학적 자료로 증빙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최근 유적의 위상에 걸맞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복원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해남 마한역사문화의 전모를 추적해 대국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고흥군의회 제9대 의원당선자
군민행복·상호 협력 다짐

고흥군의회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 12명과 의회 사무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고흥군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고흥군의회 기구와 직제, 기본현황을 비롯해 의회 사무과 주요 업무,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 등을 살폈다. 또 김병도 행정학 박사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 관련 특강을 경청했다.

의원들은 당선의원 간의 첫 대면에 따라 상견례 및 의회 사무과 직원소개의 시간을 통해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23일 폐원식을 열어 제8대 고흥군의회를 마무리한다. 이어 7월 1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4일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흥=최혁민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순천·광양 찾아 지역 현안사업 논의

"윤 대통령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요청하겠다"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일치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순천과 광양을 찾아, 무소속 시장 당선인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이 22일 순천을 방문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수진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노 당선인은 국민의힘 호남포용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번 만남에서 순천의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순천의 미래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요청했다.

내년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요청을 시작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부 통과 구간 문제 해결, 연향뜰 사업 정부기관 참여지원, 문화기반시설인 에코아트센터 건립지원, 탄소중립을 실현할 차세대 쓰레기 종합처리장 구축 지원, 강변도로 도시숲, 중앙로 샹젤리제 프로젝트, 스타필드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실내 브리핑을 마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내년에 열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구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요청 등 세부적인 논의도 있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을 광양 커뮤니티센터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 현안 등을 경청했다.

정 당선인은 현안브리핑에 앞서 박용근 인수위원과 신정 부위원장 등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호남포용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번 만남에서 광양의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광양의 미래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요청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이 전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관광,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청취하고, 광양시가 희망하는 정부 여당의 지원방안을 수렴했다.

정 당선인은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ESG 행정(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도입 ▲가칭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라며 "대통령께서 당부하신대로 순천·광양지역 현안 등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메모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순천·광양=조순익 기자

구례 상반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

구례군은 최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는 선발 대상을 2건에서 5건으로 확대했으며, 공정한 선발을 위해 외부심사를 포함한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등급 3건과 장려등급 2건을 선발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오산 케이블카사업 유치 등 관광산업 재도약의 초석을 다진문화관광실 관광개발팀 ▲보통교부세 확보 및 감액 최소화로 구례군 살림을 지켜낸 기획예산실 홍석권 주무관 ▲코로나시대 맞춤형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성화한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서청호 주무관 3건이 선정됐다.

장려등급에는 ▲빈집과 유휴공간 활용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신규도로 지정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건설과 황교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직원들은 7월 정례조회 시 상장을 수여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한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그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 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확대 선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내달부터 의무화

광양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이며,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가맹점 업무가 제한된다.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의 결제가 제한된다. 광양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를 통해 온라인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5,270여 업체가 등록했으며, 가맹점 등록 여부는 광양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미등록으로 상품권 사용 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맹점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 민·관 합동 해양정화 활동 '구슬땀'

깨끗한 진도 바다 만들기…해양쓰레기 10여톤 수확

진도군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양생태계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회원과 진도군수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진도자연휴양림 앞바다인 임회면 동녕개 일원에서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10여톤을 수거했다.

정화 활동은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과 연계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위주로 열렸다.

군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운영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 쓰레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거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깨끗한 해안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어촌마을이 있는 진도군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화순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다.

조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지가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홍길동테마파크로 놀러오세요"

제과·제빵·음료 만들기 등 체험행사 한가득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주민조직체(이하 사업단)가 홍길동테마파크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18일부터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사무소(황룡면 아곡리 373)에서 케이크·쿠키집·화전 만들기, 송편 빚기, 토마토 청·주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 중이다.

체험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가끔씩 아이와 함께 홍길동테마파크에 놀러 오곤 하는데 이렇게 먹거리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3일까지 주말에만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061-390-7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70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조직 주도로 자립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직체 28개팀(300여 명)을 육성했으며, 육성된 주민조직체가 향후 장성군 관광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벤치마킹,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여행상품 개발, 마을축제 개최 등을 통해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장성=심재식 기자